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혁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788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10월 17일 (음력 9월 7일) 수요일

신에너지 산업 4800억원 투자

비즈니스센터 구축 등 광주시, 로드맵 확정

광주시는 공동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공사가 이전하는 것과 연계해 '신에너지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는 등 4천800억원을 들여 4개분야 17개 신에너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이전에 따른 신에너지 산업육성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고 ▲에너지 클러스터 비즈니스센터 구축(1천800억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지원(1천200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천400억원) ▲한국전력 신에너지 비즈니스센터(400억원)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에너지 산업육성 로드맵을 확정했다.

시는 신에너지 클러스터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에 주력하고, 지역에너지연합대학원 운영,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조합 설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수소버스 시범 운영, 에너지파크 조성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전력연구원 광주분원'을 유치해 태양광 발전 실증연구 여건을 확충하고, 수소·연료전지 연구기반도 확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앞으로 산업자원부·한국전력 등과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지원방안을 협의해 2012년까지 이들 사업에 4천8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우람학원 창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세계로 힘차게 나는 꿈
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광주 아기울음 커졌다

신생아 증가세 계속…9월말 1만989명 작년보다 6% 늘어

광주의 신생아 증가가 확연하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9월 말 기준) 광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만9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6명(6.0%)이 증가했다. 이 같은 신생아 증가세는 지난 2006년에 이어 계속된 것으로 신생아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추세 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의 신생아는 2006년에 2005년 보다 502명(3.8% 증가)이 늘어, 밀레니엄 베이비 출산 붐이 일었던 2000년의 이상 증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1995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2006년 신생아 증가는 일시적 현상인지 본격적인 증가 추세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뚜렷한 증가를 보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가 큰 사회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 신생아 증가율은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4.9%(347명 증가) ▲9월 말 기준시 6.04%(626명 증가) 등으로 2006년의 평균 증가치(3.8%)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결국 올해 한해 태어날 신생아는 상반기와 9월 말 기준을 토대로 추정할 경우 지난 해에 비해 적어도 6~7%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낳는 부부와 늦둥이를 갖는 중년부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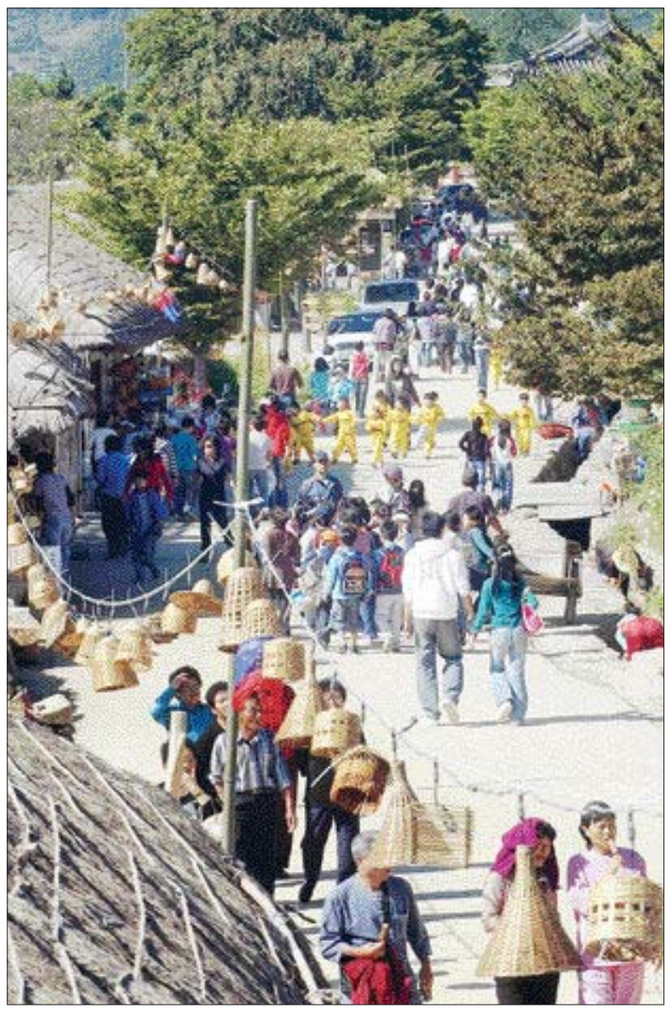
또한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국가적 우려와 정부·지자체들의 각종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출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고조된 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통계가 시작된 1990년 1만7천388명을 기록한 이후 1994년(2만2천538명)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5년 2만2천861명으로 최고점을 이룬 신생아는 1997년 2만1천611명, 1999년에는 1만9천84명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000년에는 전국적으로 밀레니엄베이비 출산 붐이 일어 2만989명으로 전년 대비 10%(1천903명)가 더 태어났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신생아 수는 2001년 1만8천55명(13.9% 감소), 2002년 1만5천900명(11.9% 감소), 2003년 1만5천816명(0.5% 감소), 2004년 1만4천619명(7% 감소), 2005년 1만3천228명(10.5% 감소) 등으로 계속 줄어왔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오늘 개막 17일부터 열리는 '제14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를 하루 앞둔 16일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이 축제를 미리 즐기려는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음식문화 큰잔치는 17일 오후 3시 상달제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열린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범여 대선구도 확정…후보단일화 급부상

이인제, 민주당 후보 선출…정동영·문국현 민생행보 본격화

지난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정동영 후보가 확정된 데 이어, 이인제 의원이 16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면서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동영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가칭 창조한국당 창당을 준비중인 문국현 후보와 함께 마지막 대선 직행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전을 펼칠 전망이다.

신당 후보로 확정된 정동영 후보는 16일 경선 과정에서의 불거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한편, 재래시장과 국립현충원, 4·19 민주묘역을 참배하는 등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당을 하나의 용광로로 만들어 12월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오는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해 후보 단일화 문제를 포함해 정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며 이해찬 전 총리와는 오는 21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

정 후보는 손 전 지사와도 조만간 만나 선대위원장직을 제의하며 협력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통령후보 최종 선출대회를 열고 이인제 의원을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했다.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범개혁 세력을 하나로 묶고 반드시 개혁진영의 단일 후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단일화와 외연 확대를 이루겠다"고 강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달 4일 창조한국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한 문국현 전 사장도 이날 서울 시내에서 첫 번째 민생투어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문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 현장이나 농촌현장 등을 방문하는 민생투어를 통해 현재 5%선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을 두 자릿수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52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전시기간 : 10월 31일까지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광주일보사 ▶문의 : (062)220-0541

제3회 광주일보문학상 강윤미씨

시 '벽에 세 들어 사는…'

'제3회 광주일보문학상' 수상자로 강윤미(27·전북 전주시 인후동·사진)씨가 선정됐다. 상금은 300만원. 〈관련기사 15면〉

전원범(시인·광주교대 교수)씨 등 심사위원단은 강씨가 응모한 시 '벽에 세 들어 사는 몽골 여자' 외 2편에 대해 "세련된 언어감각이 돋보였고, 오랜 동안 시를 두고 고심하고 닦은 흔적이 역력했다. 무엇보다 섬세하고 모던한 감수성이 매력적이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멜순'이 당선되면서 등단한 강씨는 제주에서 태어나 원광대 문예창작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같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시상은 내년 1월 200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함께 이뤄진다. /정상필기자 camus@